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해 전주, 미래비전 실행에 '방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공에 힘 신다

2024년 전주시정 운영 방향

▶▶ 관련기사 16면

시, 왕의공원·마이스 등
대변혁 10대 프로젝트
전주·완주 통합 추진 등
10대 역점 전략 제시

우범기 시장 “시민 위해
계획한 전주의 큰 꿈 실행”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시성장을 위한 거점별 10개 핵심공
간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 지형을 완성
하는 등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하는 원
년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구상해 온 경
제·문화·관광 등 분야별 미래 청사
진을 구체화하고, 전주의 거침 없는
대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시청 회의실
에서 2024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큰 꿈!
바로(同時多義) 실행합니다!' 라는 비
전 아래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
와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을 제시했다.

도시 주요 거점별 핵심 공간의 변화
를 이끌 10대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
고의 역사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미래광역도시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마이스 복합단지 조
성' △'이호호수 관광명소화' △안전
하고 쾌적한 '전주천·삼천 통합문화
공간 조성' △강하고 젊은 기업이 모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을 제시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또 △머물고 싶
고, 다시 찾고 싶은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2040 명품 스포츠관광도시 도
약을 위한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
운 대표관광지 조성' △'완산철봉 관
광 명소화 사업' △고부가 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영화·영상산업 클
러스터 조성' △한지 세계화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왕의
공원 프로젝트와 종합경기장 마이스
(MICE) 복합단지 등 6대 비전을 포함
한 10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
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삶의 질과 밀
접한 경제·문화·복지·도시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을 10대 역점전략으로
정하고,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키로 했다.
10대 역점전략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 △창업기반 조성과 좋은
일자리로 강한경제 구현 △머물고
있는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 △매력
적인 유·무형 문화자산 가치 제고 △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도시로 변화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환자·가족·이웃 모
두 힘이 되는 치매안심도시 실현 △지
속가능한 미래광역도시 인프라 구축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도시농업 기
반 조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
발과 발맞춰 전주·완주가 지역 발전
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
해 온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내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우
수기업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기반을 갖추
게 될 것이다.

우범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는
그동안 100년 미래를 위한 전주 대도
약을 목표로 삼고,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변화의 틀을 갖추기 위해 힘 없이 달려
왔다. 2024년은 그동안 마련한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동시에 실행하는 원년
으로, 새해 전주시는 시민을 위해 계획한
전주의 큰 꿈을 바로 실행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김관영 도지사,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나리찬' 방문
2021년·2023년 지원받아 매출 120억원으로 올라

김관영 도지사가 올해 첫 현장행정
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방문하
며 삼성과 함께하는 전국 최초 지역특
화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인 '전북형 스
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
을 실었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4일 삼성전자 김동욱 ESG&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김대중·한정
수·윤영숙·김정수 도의원, (사)전
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정철영 대표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중소 상생
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인 (주)나리찬
을 현장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주)나리찬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수
혜를 받고 매출이 급성장한 기업 중
하나다. 김치류 제조업 기업인 (주)나
리찬은 2021년과 2023년 지원을 받고 매
출이 기존 37억원에서 120억원가량으
로 경증 뛰었다.

(주)나리찬의 성공에는 삼성전자 현지
멘토의 제조혁신 활동지원이 뒷받침
됐다. 삼성전자 멘토 3명이 8주가량
현장에 직접 상주하며, 제조공정과 물
류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냈다.

기존의 제품 보관장소가 부족한 부
분을 팹팩트랙(High-Rack) 설치와 품
목별 위치관리로 창고면적을 기존 198
평에서 324평으로 64% 향상했다.

또한, 전용 작업대 구축, 공정간 이
동 도구화(컨베이어벨트, 대차 등) 개
선으로 기존 하루 25톤 생산량을 하루
30톤까지 20% 끌어올렸다.

올해에는 수주에서 생산, 출하까지
전공정을 ICT로 연계한 시스템 체계
구축으로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 내
년에는 자동 온도량 제어, 계획과 생

산의 정량체계 구축으로 시스템에 기
반한 공장운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기업현장 방문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으로 발굴을 향하며, 스마트
공장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
다.

전북도는 지난해 14개 시군, 삼성전
자, 스마트CEO포럼, 전북TP와 함께 전
국 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
트공장 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
신 프로젝트'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이어진 기업간담회에서도 전북
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소기업들
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표출됐다. 그
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전북
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들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지
원 수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
자치도 출범 10년 내내 중소기업
혁신의 원년이다”며, “기업의 생태계
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
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바
로 그 출발점이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
혔다.

삼성전자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은 “(주)나리찬의 스마트공
장 성공은 삼성의 스마트공장 멘토들
과 나리찬 임직원들이 함께 임원이
되어 이룩한 성과”라며 “전북형 스
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들도 담당 멘토를 믿고 함께 혁신해
나간다면 (주)나리찬과 같은 우수 사
례가 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도, 작년 외국인 투자유치 4억5700만 달러... 사상 최대

이차전지분야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 '결실'

권 기준 2위이며, 신고금액은 9억
1,600만 달러로 비수도권 기준 4위를
기록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다.
주요 투자건으로 중국의 글로벌 이

차전지 기업인 지이엘코리아뉴에너
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 크
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8,000만 달러 등이 있었으며, 올
해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 건수는
총 44건으로 전년의 30건에 비해
14건이 늘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
매 유통이 21개사, 화학분야 9개사,
금속기계분야 6개사, 숙박·음식점

분야 3개사, 식품 2개사, 연구개발분야
2개사, 환경 분야 1개사 등이었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이
2022년 12개사에 이어 작년도 가장
많은 16개사가 투자했으며, 이어서
베트남 7, 미국 4, 일본, 영국, 홍콩
각 2개사 및 그 외 국가 등 총 17개
국가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전북도에 지역별로는 군산이 18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익산 8

전주 7, 김제 3, 완주·정읍 각 2, 그
리고 고창·남원·부안·무주는 각
1개씩을 기록했다.

현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특
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에는 기존
주력산업인 농식품, 상용차, 탄소, 에
너지 등의 기존산업분야를 더욱 고도
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